

日 자민당, 총선서 역대급 압승…‘다카이치 1강 체제’ 굳혀

다카이치 총리 정치력 입증…여당 의석 3분의 2 넘어 입법 독주 가능
무기수출 규제 폐지·평화헌법 개정 등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 강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압승을 거두며 일본 정치 지형을 다시 ‘자민당 1강 체제’로 되돌려 놓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단행한,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승부수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향후 일본 정치는 강경 보수 성향의 안보 정책과 적극 재정을 축으로 한 ‘다카이치 색채’가 한층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분의 2(310석)를 훌쩍 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기록한 종전 최다 의석을 넘어서는 수치로,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36석을 확보하며 여당 전체 의석수는 352석에 달했다.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75% 이상을 점유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종의원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입법 독주’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은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종의원 의석이 198석에 불과했다.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상실하며 여소야대 국면에 놓였던 자민당은, 불과 1년여 만에 압도적 여대 애소 체제를 회복하며 정권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이번 압승의 최대 요인으로는 다카이치 총리 개

인의 높은 인지도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을 사실상 ‘정권 선택 선거’로 규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단순화하는 효과를 낸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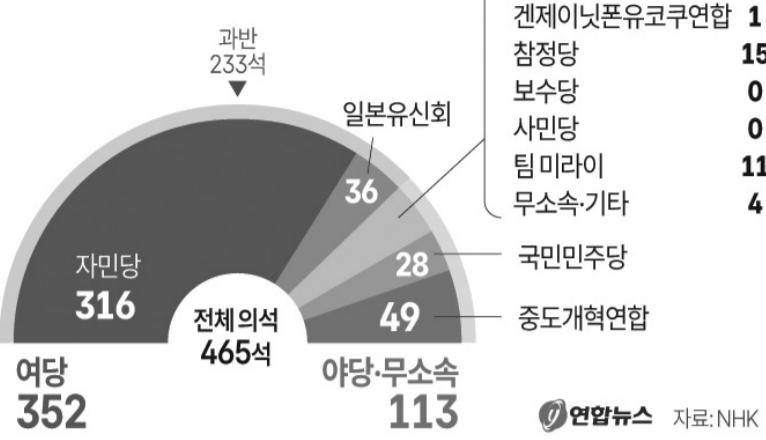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이 아이들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공개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정치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1억 회를 넘겼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여론 확산이 두드러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 정치인이라는 쇄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무당파층까지 흡수했다”고 평가했고, 요미우리신문은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전면에 내세운 자민당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의 압점으로 지적돼 온 정지자금 문제와 비자금 스캔들, 종교단체와의 유착 논란 등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면 최대 애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했다. 선거 전 의석이 167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총선 직전 급히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정책과 노선의 어질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열풍 속에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일본중의원선거 결과

8일 실시, 최종 집계 결과



연합뉴스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대표 다카이치 사나에가 8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하원 선거 승자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핀을 꽂고 있다. /연합뉴스

온다.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우호적인 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390석을 웃돈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고 있어, 개헌안 발의 여부는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관리 투자와 통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AI·반도체·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직후 일본 종시에서 낙타케이 평균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자민당을 제어할 원충 역할을 했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일본 정치가 우측으

로만 치닫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안보 정책을 밀어붙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경제와 재정 문제에 별 목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압승이 확실해진 뒤 NHK에 출연해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의 전략”이라며 개헌 언급은 피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초대형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일본을 이끌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美 진보 지식인 촘스키, 업스타인과의 관계 사과

“과학에 관심 있는 자선가로 소개…성범죄 사실 몰랐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업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자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97)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가 아니라 함께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촘스키 교수의 아내 발레리아 여사는 부부 명의로 장문의 성명을 내고 업스타인이 자신들을 속였으며 그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발레리아 여사는 남편이 업스타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5년으로, 업스타인은 자신을 과학에 관심이 있는 자선사업으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은 업스타인과 함께 미성년자 성 취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부주의를 범했다”며 “이는 중대한 실수였으며, 이

러한 판단 착오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범죄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변태 행위를 일삼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촘스키 교수와 업스타인의 관계는 지난달 30일 미 법무부가 ‘업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파일에는 업스타인이 2019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촘스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촘스키는 ‘노엄’으로 서명한 메시지에서 “최선

의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라 했고, 업스타인은 이

메시지를 자신과 이메일로 공유했다.

업스타인이 촘스키 부부와 만났으나, 추후 뉴욕이나 카리브해 방문을 논의하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다. 발레리아 여사는 남편이 업스타인에게 조언한 내용은 매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스타인은 노엄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박

해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엄은 언론과의 정치적 논란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업스타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조작적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노엄은 선의로 그것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편과 함께 업스타인의 뉴욕 자택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뉴욕과 파리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도 머물렀지만, 카리브해 섬에는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발레리아 여사는 이와 함께 남편과 업스타인 사이에 두 건의 금융거래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아마도 노엄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스타인이 자신들의 재정 자문 역할만 했으며, 자신들은 업스타인의 회사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AI·빅테크, 슈퍼볼 광고 30초에 117억원 투자

자동차 업체들은 포기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챔피언 결정전)에는 인공지능(AI) 기업들과 빅테크가 대거 광고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구글, 아마존, 매티, 오픈AI, 앤트로피 등 빅테크와 주요 AI 기업들은 물론 ‘젠스파크’, ‘워스’(Wix) 등 중소 AI 기업들도 올해 슈퍼볼에 광고를 했다.

CNBC는 “전례 없는 수의 AI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CNBC는 “AI 기업들이 올해 슈퍼볼 광고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업체 등 전통적인 기업들의 광고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AI 기업 등 기술 기업들이 광고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광고 효과 분석 업체 아이스팟에 따르면 2012년 만 해도 슈퍼볼 광고 시간의 40%를 차지했던 자동차 업체들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7%로까지 급감했다. 앞서 CNBC는 올해 슈퍼볼 경기 중 광고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체는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폭스바겐 등 3곳

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슈퍼볼 30초짜리 광고는 평균 800만달러(117억원)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완판됐다. 일부 광고는 1000만달러 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CNBC는 전했다.

올해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비용 문제로 광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체들의 슈퍼볼 광고 감소 배경으로 CNBC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공급망 문제, 관세, 전기차 시장 후퇴 등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성을 짚었다.

슈퍼볼은 미국 내 시청자만 1억명이 넘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다.

경기가 열린 캘리포니아주 샌타克拉라 ‘리바이어스 스타디움’ 인근의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고 경기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내 호텔까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객실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만 인근 베이 지역 스포츠 행사 유치를 전담하는 ‘베이지역유치위원회’(BAHC)는 슈퍼볼 행사로 이 지역에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경주시 북구 자미로45(신정동)
공장 경주시 서구 서장2길3(서정동)

전화 054-531-3530

Fax 054-531-3530

E-mail expo7624@hanmail.net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구 서장2길3(서정동)

우편번호 760-734

면적 1,000m²

층수 1층

면적 1,000m²

층수 1층